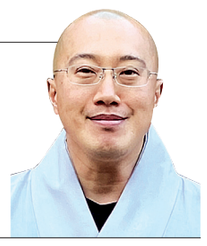
현불논단

칠불통계를 다시 생각하다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불교, '연기'란 관계성 법칙 중요시
바른 생각, 실천위해 칠불통계 강조
일곱 부처님 공히 가르치셨던 계율

'내 이익 위해 타인 힘들게 말라'는
칠불통계, 불교 지향하는 삶의 모습
네트워크 사회인 현재 필요한 金言
이태원 참사, 모두의 잘못이자 상처
나와 남 모두 이로운 행동이 필요해

불교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관계성의 법칙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종교이다. 이는 한 대상과 다른 대상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이 연기법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인연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고 인연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불교에서 생각하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다. 자신 혼자서 안락하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주변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불교적 삶의 실천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더불어 주변에 대한 바른 생각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즉, 바른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계율'이라고 한다. 불교의 계율에는 보다 상세한 구분이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칠불통계(七佛通戒)'이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이어지는 과거의 6분 부처님이 한결같이 수계하고 가르치시는 계율로서 불교적 삶의 토대이며 완성을 말한다.

칠불통계는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로서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온갖 선한 일을 찾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내용이다. 지극히 당연한 말로서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칠불통계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극히 당연하기에 그 당연함을 잊기 쉽고, 가볍게 생각하기에 행동하기 어려운 것이 칠불통계이다. 그렇기에 불교가 무엇인가라는 백거이의 질문에 도림선사도 이 칠불통계를 말하며 세 살 아이도 알고 있는 것이지만 팔십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칠불통계는 불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다.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라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나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온갖 착한 일을 찾아 행하라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인연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자신에게 이로움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나누고 회향하라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는 것은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지 말고 삿된 이익을 위해 자신까지도 속이며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적 삶이라는 것으로 그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락해진 요즘에는 오히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더욱 사라져 간다. 풍요와 안락을 자신만의 것으로 하려 발버둥치고, 다른 사람의 것조차 자신의 것으로 하려하고, 자신의 양심까지도 속이며 작은 잘못조차도 감추려 애쓴다. 이런 삶의 모습에는 인간다운 인연이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이어질 때이다. 모든 것이 이어져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 홀로라는 것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 더욱이 네트워크로 이어진 현대사회는 인드라망의 인연법이 그대로 적용된 세상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혼자만의 이익이나 면죄부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참혹한 사고를 겪은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나와 무관한 일이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고 언제라도 우리의 일로 다시금 벌어질 수 있는 흔한 일상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상대에게 떠넘기고 자신만은 정당하다고 결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모두의 잘못이고 모두의 상처이다. 언제나 늦은 뒤에 후회를 한다. 이제는 그 후회 뒤에 다음 삶의 모습을 갖추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고, 나와 남이 함께 이로운 일을 찾아 실천하며, 자신을 속이는 일 없이 모든 일에 마음을 두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잘 알아 함께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는 불교적 삶을 넘어 우리의 삶이 바르게 나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토대인 것이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⑨ 영화 '범죄도시 Ⅰ·Ⅱ'

5대 5의 이치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범죄도시 1'에서 독사(허성태)가 "니 내 누군지 아니"라고 묻자 장첸(윤계상)이 하는 대답이다. 그런가 하면 독사가 "너 누기야"라고 묻자 장첸은 "누구긴 누구야. 빚쟁이지"라고 대답한다. 장첸에게는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다. 만나는 상대가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고, 마찬가지로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상대에게도 자신을 소개할 생각이 없다. 장첸의 관심사는 오직 부채금액과 변제방법밖에 없다.

"너 내 누군지 아니? 하얼빈 장첸이야." '범죄도시 1'에서 장첸이 장이수(박지환)를 칼로 찌르면서 하는 대사이다. 장첸이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방에게 알려줄 때는 극악무도한 폭력이 동반될 때인 것이다. 위 대사는 '범죄도시 2'에서 장이수가 강해상(손석구)에게 건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강해상은 어떤 인물일까?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강해상입니다. 내가 한국 온다고 했지. 내 돈 어딨어?"

'범죄도시 2'에서 강해상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사채업자인 최춘백(남문철)에게 건네는 인사말이다. 장첸과 달리 강해상은 먼저 자신의 이름부터 소개한 뒤 "내 돈 어딨어"라고 묻는다. 강해상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이유는 빚을 받으러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강해상이 최춘백에게 "하나도 안 닮은 것 같다"는 사람은 최춘백의 아들인 최용기(지우진)이다. 최용기는 강해상에 의해 살해됐다.

장첸과 강해상은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자신이 만진 돈, 자신이 가지고 싶은 돈은 모두 자신의 돈이라고 여기는 것도 공통점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강해상이 더 악랄하다는 것이다.

김형효 교수는 서양철학을 소유론적 철학으로 정의했다. 서양의 언어에는 명사가 발달한 것도 그 실례로 봤다. 김형효 교수는 명사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동사적 사고방식을 역설했다. 동사적인 사고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동사이고, 다른 하나는 자동사이다.

프랑스의 언어학자 뱅브니스트는 'have' 동사가 피동형으로 안 쓰이는 것에 주목했다. 어느 나라의 언어든지 'have'의 의미를 갖는 동사는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지고 있다"는 한국어에서 알 수 있듯, having과 being은 의미상 같이 동거하고 있다. 이는 유식학의 제8아뢰야식에 중생의 종자와 부처의 종자가 공존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와 관련 김형효 교수는 "being하면 부처가 되고, having하면 중생이 된다"고 봤다. 다시 말해, 소유론적 사고로 세상을 보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 존재론적 사고로 세상을 보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도식화하면 이 세상에는 소유론적 철학과 존재론적 철학이, having하는 사람과 being하는 사람이, 부처의 종자와 중생의 종자가 5대5로 섞여 있는 것이다.

김형효 교수의 말마따나 have와 be는 이웃사촌이고, 부처와 중생은 종이 한 장의 차이인지도 모르겠다.

〈소설가〉

社 說

'신심 고취 · 포교 진흥' 기대한다

11월 16일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50일을 맞았다. 이날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공개 108배를 했다. 사실 진우 스님은 지난 9월 28일 취임 이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6시 50분경 부처님 전에 108배를 올렸다.

108배 후에는 진우 스님이 모두 발언과 취재진 차담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취임 50일을 맞은 진우 스님의 메시지는 '신심 고취'와 '포교 진흥'으로 귀결된다.

진우 스님은 108배를 하며 "'포교로 세상을 편안케 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고 했으며, '어떻게 하면 불교에 대한 신심을 고양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매일 하고 있다"고 했다.

제37대 집행부 최우선 사업으로 내세운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도 '신심 고양'을 위한 종책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불교를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해왔는지, 불교가 국교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알아갔으면 한다"는 게 진우 스님의 복안이다.

진우 스님은 취임 이후 매일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사찰, 단체 등을 찾아다니며 법문하거나 축사를 한다. 모두 불자들에게 신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포교 중흥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는 것도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진우 스님의 노력이다.

진우 스님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통합종단 60주년 기념법회'에서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벗이 돼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해주는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상의 벗'이 되는 불교, 그 끝에는 포교 중흥이 있다.

일방통행적 상담사法 제정 안된다

최근 불교계 심리상담단체, 관련 학회 등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바로 상담심리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현재 심리상담사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고 심리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만 4300여 건에 이르고 있어 국민들이 전문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심리상담사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상담사 법안'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심리상담사법안'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안'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심리사법안' 등 4건이 발의됐다.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법제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선별 과정 속에 종교 분야와 예술심리상담, 놀이치료사 등 다양한 심리치료 서비스가 배제돼 문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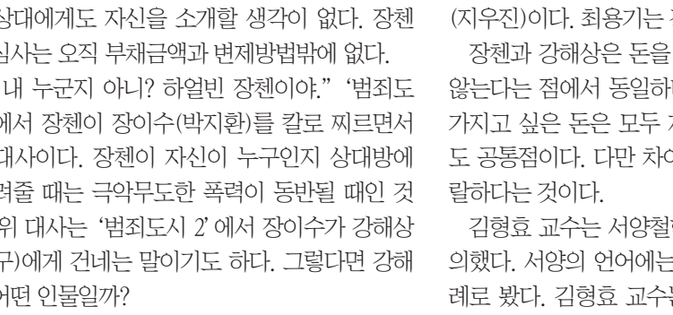
11월 12일 경주 황룡원에서 열린 한국불교상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불교계 상담가 스님, 학자들의 성토가 이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날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지난 11월 3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임상심리학회와 심리사들은 다른 단체는 쓸모없는 비전문가 취급을 했다"고 토로하며 "다른 법안을 마련해서라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불교상담가를 구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리학만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전공자도 훌륭한 카운슬러가 될 수 있다. 현재 법안들은 불교 상담을 비롯한 특성화된 상담들을 모두 '유사심리서비스'로 규정 중이다. 심리상담을 정신병리적 치료에 국한시키는 것은 도리어 국민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정책이다. 정치권은 불교와 종교계의 주장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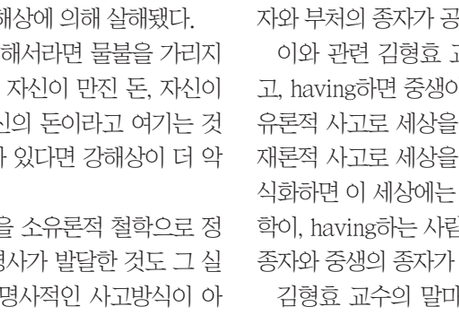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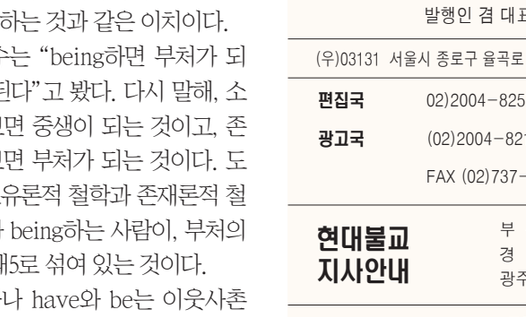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먹는 법
한 포씩 500ml물에 타서 수시로 나누어 마신다
나만의 요리에 조금 뿌려 먹는다
컵에 조금씩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차처럼 나누어 마신다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